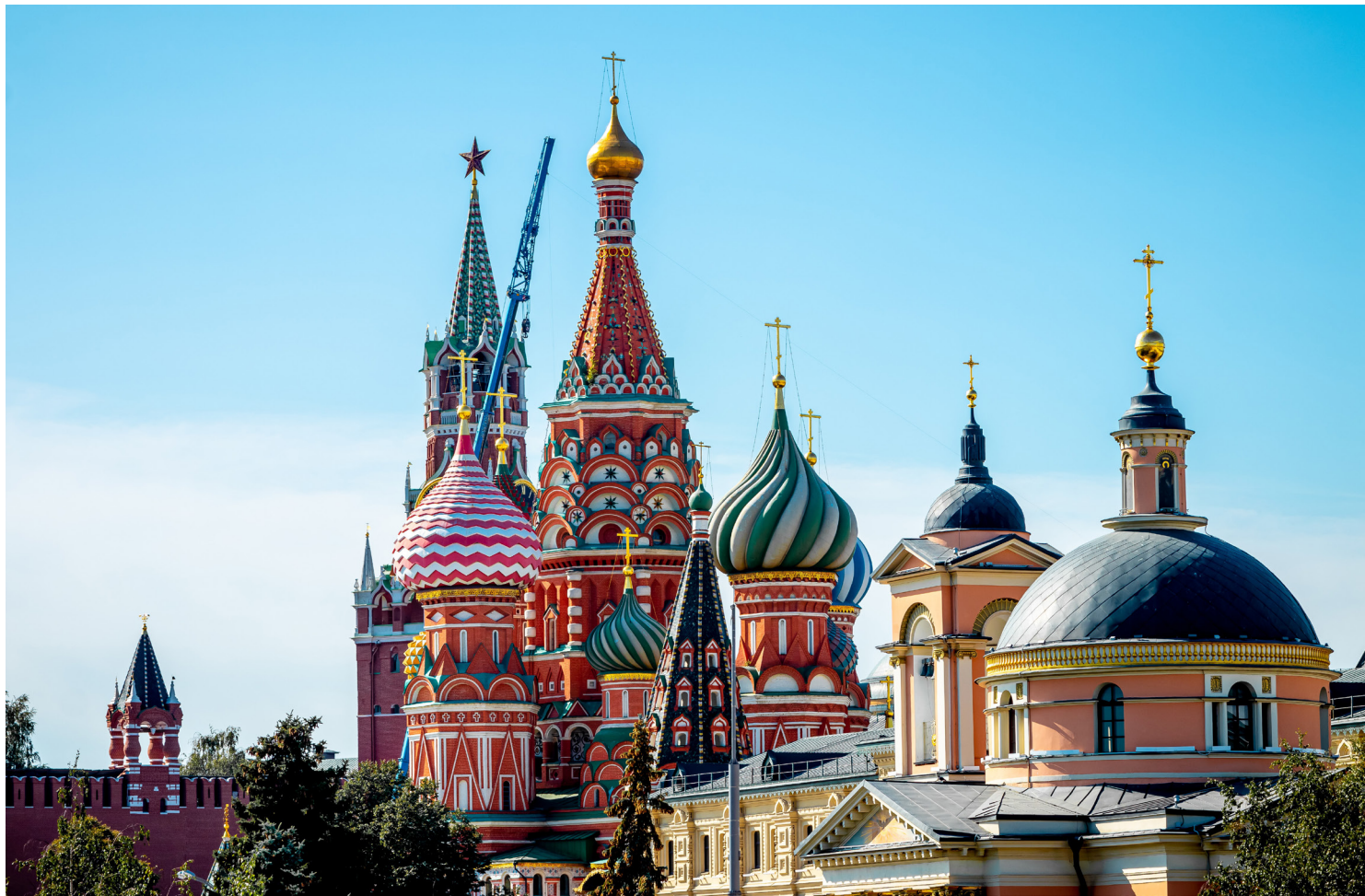


12 기획-후마니타스 우수강의 ④ 안지영 ‘기초러시아어’



외국어는 여러분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해당 언어권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될 것이다. 더욱이 많은 외국어들은 외국어 명칭에 해당하는 나라보다 훨씬 넓은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사진-언스플래쉬)

러시아어가 열어주는 ‘소통’의 문

안 지 영

교수 · 러시아어학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과 사고의 틀을 함양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신문이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기획하는 ‘후마니타스 우수강의’에서는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 중 우수강의로 선정된 강의 교수자의 기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양 강의의 지침서를 제공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강의평가를 기준으로 우리신문이 자체적으로 선정했으며, 국제캠퍼스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선정 우수강의’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국제캠퍼스는 직전 학기 강의평가 점수와 수강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답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교과영역별로 후마니타스칼리지 우수강의를 선정하고 있다.

사실 ‘기초러시아어’ 강좌 관련 원고청탁을 받았을 때, 잠시 고민이 됐다. 무엇보다 ‘기초 러시아어’는 특별한 소개나 설명이 필요한 과목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과목 명칭을 보면 예측할 수 있듯이, ‘기초 러시아어’는 러시아어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먼저 33개에 달하는 러시아어 문자를 꼼꼼히 익혀 잘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초급 단계의 기본 문법을 배우고, 배운 문법을 활용해 간단한 회화를 연습하고, 러시아 사람을 만나거나 러시아어권 지역을 여행할 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보고, 사이사이 러시아 노래를 듣거나 러시아 음식을 소개하는 등 문화 관련 이야기를 나눈다. 아마 ‘기초러시아어’뿐 아니라 현재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개설되는 기초단계의 제2 외국어 과목들도 어느 정도 유사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고민 끝에 원고청탁을 수락한 것은 비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제2 외국어를 가르치며 생각해 오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다. 글을 쓰며 예전 수업 기록들을 찾아보니, 2009년부터 드문드문, 당시에는 ‘러시아어 1(교양)’이라 불리던 수업을 해오다가, 매 학기 ‘기초러시아어’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17년부터의 일이다. 늘 전공 학생들과만 수업을 하다가, 50명 가까운 비전공

학생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며 가장 궁금했던 것은 수강생들이 무엇을 목표로 이 수업을 듣는가 하는 점이었다. 또 교수자의 입장에서, 대학 시절,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배운 낯선 외국어 기초 지식이 공과대학, 체육대학, 응용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전자정보대학 등에서 제2외국어와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어1(교양)’이라는 과목 명칭이 ‘기초러시아어’로 바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사이에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 관련 AI(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다. AI를 사용한 NMT(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며,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음성/문자 번역기의 수준이 단시간 내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번역기를 돌려 한국어 문장을 러시아어로 번역해 보면, 그 결과물의 수준이 해가 다르게 발전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더욱이 이 기술은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도 깊숙이 들어와 사용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잘 모르는 채로 외국을 여행하는 주인공이 다급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켜고 음성인식 번역기를 사용해 상대와 소통하는 장면은 이제 아주 흔하고 일상적인 장면이 됐다.

그리고 이렇듯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며, 그만큼 놀라운 속도로 우리 삶에 들어와 상용화된 언어/번역과 관련된 다양한 툴들은, 고작 한 학기 동안 익힌 기초 수준의 외국어 지식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묻던 필자에게도 새로운 답이 돼주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수업을 준비할 때 ‘무엇이 남을까?’ 하는 질문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가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것이 고민되는 만큼, 결국 학생들에게 ‘무엇이 남을까?’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 배우는 쪽이나, 가르치는 쪽이나 애쓰며 수고하고 있지만, 중간고사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과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 것 중에 ‘무엇이 남을까?’라는 질문 앞에 늘 서게 된다. 물론 당연히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태반이겠으나,

가능하다면 최대한 남을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교양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가르치며 문득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수업 중에 배운 외국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구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문법 지식, 가장 기초적인 단어들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다양한 언어 관련 번역기들과 툴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해당 외국어의 알파벳과 파닉스를 이해하고 잘 읽을 수만 있어도, 가장 기초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법 지식만 있어도,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예전에 고작 한 학기 배운 러시아어가 평생 다시 쓰지 않을 말일 확률이 훨씬 높았다면, 지금은 외국어 관련 기초 지식만 가지고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도 진부한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후마니타스칼리지에 개설돼 있는 다양한 외국어 과목들을 공부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해당 언어의 알파벳을 잘 습득하여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본인이 가진 것보다 훨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외국어가 열어주는 ‘소통’의 문은 참으로 다양하다. 어쩌다 마주친 외국인들의 짧은 한국어 몇 마디에도 반갑게 마음이 열리듯, 여러분이 익힌 외국어는 여러분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해당 언어권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될 것이다. 더욱이 많은 외국어들은 외국어 명칭에 해당하는 나라보다 훨씬 넓은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를 익히면,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舊소련국가들의 문이 열리고,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스페인뿐 아니라 중남미 여러 국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프랑스어는 프랑스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사용된다. 문화의 문도 마찬가지로. 이미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물론 시간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해, 또 많은 것들이 망각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겠으나, 기술이 열어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마음으로 다양한 외국어의 문을 두드려보시기를 권한다.